

Why?

눈물로 ‘통일씨앗’ 키우는 脱北 아들딸들의 선생님



장일현 기자의
인&아웃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1997년 12월 초 13명의 탈북자 이야기가 국내에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탈북자 13명이 중국 동북 지역을 출발해 7000km를 강행군한 끝에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 했지만 한국 대사관의 외면, 중국과 제3국의 ‘핑퐁’ 식 떠넘기기로 현지 국경에서 9명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당시 언론에 탈북자들의 대장정을 기획하고 이끈 주인공으로 ‘통일강냉이’라는 단체와 한 선교사가 등장한다. 실제로는 현장에 3명의 동료가 더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조명숙(44)씨. 서울 남산에 있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여명학교’ 교감이다.

“1997년 10월 중국에서 탈북자 13명을 데리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데, 내 역할은 제3국 쪽 국경수비대 시선을 탄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파란색 아이새도를 질게 칠했다. 그런데 하필 걸여 들어간 곳이 지뢰 지대였고 곧 군인들에게 잡혀버렸다.”

그와 좀 떨어진 곳에서 월경을 시도하던 탈북자들도 두 번째 초소에서 발각됐다. 작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조명숙은 “나만 영어를 한다”고 나섰다. 밤새 군인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심문을 받았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였다. 당시 그는 27세,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다. 남편이자 동료 활동가인 이호택씨는 중국 쪽에서 상황을 챙겼다.

“한 군인이 나를 옆방으로 끌고 갔다. 침침한 조명 아래 침대 하나가 있었다. 절망적이었다. 하나님이나 이런 피까지 필요하신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답이 커지더라.”

조명숙은 용기를 내 주머니를 뒤져 20달러를 그 군인 손에 쥐여주었다. 군인은 웃으면서 방을 나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경악했다. 밖에는 아까 그를 심문했던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조명숙은 그들에게도 차례로 돈을 쥐여줬고, 결국 탈북자들과 함께 풀려날 수 있었다. 이렇게 힘들게 구출한 탈북자들을 한국대사관으로 데려갔는데 관련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9명이 실종됐다.

조명숙 부부는 몇 달 후 다시 중국으로 가서 6개월 넘게 수조문한 끝에 실종 탈북자를 모두 찾아냈다. 이듬해 8월까지 남한행을 포기한 부부를 제외하고 7명을 모두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데리고 온 사람들과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나중에 보니 애들은 학교를 중퇴했고 어른들은 신용불량자가 됐더라. 북한에선 당이 다 결정해서 학교 보내주고 취직시켜줬는데 여기선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니 적응을 못 했던 거다. 한두 개 몰라야 물어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볼 엄두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04년 여명학교 설립… 궁금증이 없는 학생들

학교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탈북자를 위한 활동은 성과가 없다는 패배주의가 퍼져 있었다.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다.

“2002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20세 탈북 여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듬해



조명숙 제공
지난 2011년 여명학교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찍은 사진. 당시 조 교감이 “이렇게 견디고 살아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한 여학생이 조 교감 품에 안겨 펄펄 울었다.

외국인 노동자 돕다 탈북자 돕다

중국 버스에서 본 60대 탈북자 공간이 들이닥쳐 오랏줄로 ‘핑퐁’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무것도 못해 광하고 충격… 인생 행로 바꿨죠

탈북 아이들이 ‘통일의 미래’다

1997년 死線 넘어 南에 온 탈북자들 2년뒤 보니 애들은 학교 중퇴하고 어른은 신용불량자가 돼 있더라 이 때 결심했죠… ‘학교를 열자’라고

학생 한 명이 더 늘었다. 지하방을 얻어 ‘자유터’라는 야학을 시작했다.”

주변에선 얼마 안 가 그만둘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는 사이 학생 수는 30여명으로 늘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2004년 교회와 후원자,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통일의 새벽을 연다’는 뜻을 가진 여명학교를 열었다. 여명학교 재학생은 현재 94명. 그중 23명은 부모가 없다. -탈북 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꼭 필요한 것일까.

“만일 우리 보고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면 6개월 내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를 힘들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겠나. 탈북 청소년들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아이들이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보호와 치유도 병행해줄 공간이 필요했다.” - 보호와 치유가 필요하다니.

“낮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언뜻 보고 ‘이 애들에게 무슨 상처가 있겠어’라고 할지 모른다. 밤이 되면 달라진다. 이상한 잠꼬대를 한다. ‘엄마 피해, 숨어, 도망가’ 그런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있는데 그 위에 웃만 입혀 놓은 꼴이라고 할까. 반갑다고 껴안으면 그 상처를 눌러 고통을 주게 된다. 어제까지 별의별 농담을 다 하며 잘 지내다가도, 전안환·연평도 사건이 터진 뒤 ‘야, 너희 삼촌이 했냐’라는 농담 한마디에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이곳 교육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상처를 먼저 치유하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 지식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걸 본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그대로 있는 데 무슨 공부를 하겠나.”

- 그런 상태라면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공부 잘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있다. ‘북에 있는 엄마가 결핵에 걸렸다’ ‘가족이 보위부에 잡혀갔다’는 전화를 받은 거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다. 북한과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화를 할 수 있게 된 걸 아이들은 ‘과학이 혁명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 혁명 때문에 아이들의 가슴이 찢어진 다.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 더욱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다.”

- 북한 학생들이 정말 다르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궁금증이란 걸 가져보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때이다. 우리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운다고 난리다. 이 애들은 질문을 하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배우려고 여기 온 학생 아닙니까. 선생님이 답을 얘기해 주셔야지’라고 한다.”

B2면에 계속

지난 26일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이 학교 건물 지하 1층 미술실에서 탈북 청소년이 그린 그림 앞에 앉았다. 이 그림은 중국 공안에 잡힌 여학생이 오랏줄에 묶인 채 복송당하는 장면이다. 여학생 뒤에는 공포의 대상인 북한군이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듯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 악몽을 많이 본다.

김지호 기자



LA지점
미국에서 전(전)미(미)
한국(한국)에서
도(도)도(도)도
F-3000-300-1158

타항공 실시간 예약서비스 실시
suwon.toptravel.co.kr / anyang.toptravel.co.kr / jongro.toptravel.co.kr
bundang.toptravel.co.kr / ilsan.toptravel.co.kr / incheon.toptravel.co.kr / seoon.toptravel.co.kr
dongducheon.toptravel.co.kr / www.etoptravel.co.kr / kimpo.toptravel.co.kr

지금 타항공에선
아시아나 미주왕복항공권이
최대 50% 할인
미국여행은 역시 탑-아시아나

TOP EVENT | 신한카드 결제 시 항공료가 5% 줄어듭니다
Top's 미사부 럭셔리 캠페인 여행
인생의 최고가 필요할때 떠나는 힐링여행
여행하기 여행문의: 02-722-2727

[타항공 53개 지점] 본사 총로 남대문 광화문 세종 시청 강남 서초 청담 안국정 창성산재 창화 문정 구로 목동 여의도 용산 마포 서교 신촌 한남 한남동 중계 동탄 분당 분당서현 분당미로 분당정자 이천 광주 양산마루 동두천 구리 안양 부천 안산 시화 수원 수원역 양동 평택 부평 인천연수 김포공항 김포 인테넷 인터파크 인터파크 인터파크 인천공항 신한은행 티몬 LA지점

모든 여행은 탑으로 돌린다 ▶ 항공권 / 패키지 / 에어텔 / 호텔 / 여행지보험
☎ 해외여행 갈 땐 1688-1001 ☑ 탑투어를 www.toptour.com

(주) 탑 항공 아시아나항공